



17일 2010 남아공 월드컵 최종예선 이란과의 경기를 앞두고 파주 NFC에서 가진 축구국가대표팀 훈련에서 선수들이 단체 몸풀기를 하면서 환하게 웃고 있다. /연협뉴스

허정무號 “이란 격파 준비 끝”

오늘밤 월드컵 최종 예선전 “유종의 미 거둘 것”

박주영·기성용 프리킥 특훈 등 필승 의지 다져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이란을 꺾고 2010 만에 ‘예선 무패’의 신화를 재현할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 무대에 대비하는 일만 남았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7일 오전 파주 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이란과 최종예선 8차전 홈 경기(17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를 하루 앞두고 마지막 훈련을 치렀다.

이미 7회 연속 월드컵 본선진출을 확정 한 상황이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의지로 똘똘 태권전사들은 1시간여 동안 진행된 훈련을 통해 끝을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에 구슬땀을 흘렸다.

대표팀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실전에 대비해 주전조와 비주전조로 나눠 미니게임을 치렀고, 코치진들은 선수들의 몸 상태를 눈여겨보면서 조직력 끌어올리기에 열중했다.

허정무 감독은 주전조에 박주영(AS 모나코)-이근호(이와타) 투톱을 선두로 좌우에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이창용(서울)을 배치했고, 중앙 미드필더에 김경우(성남)-기성용(서울) 조합을 내세웠다.

또 포백(4-back)에는 김동진(제니트)-이정수(교토)-조용형(제주)-오범석(사마라)을 출전시켜 이란의 파상공세에 대비했다.

코치진은 미니게임 도중에 자주 프리킥

상황을 마련해 공격과 수비의 대비책을 점검했다. 프리킥은 박주영과 기성용이 수비벽의 위치와 거리에 따라 서로 상의해 최종 키커를 결정했다.

더불어 박주영-이근호-박지성-이청용으로 이뤄진 최전방 공격진은 서로 유기적으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크로스와 슛을 번갈아 시도해 눈길을 끌었다.

골대를 지키는 이운재(수원)는 경기 내

체육회·KOC 통합된다

정관 개정안 이사회 통과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완전 통합작업이 난상토론 끝에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체육회는 16일 송파구 오문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조직을 NOC(국가올림픽위원회) 중심의 선진 체육단체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완전 개정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수년간 체육회와 KOC의 분리 통합 여부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였던 체육회는 이에 따라 24일로 예정된 대의원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이 최종 승인되면 사상 처음으로 NOC 중심의 단일체육기구로 한국 체육을 이끌어 가게 됐다.

한국 이후 분리 운영되던 체육회와 KOC는 지난 1968년 부분 통합을 이뤄 양 기구의 수장과 사무국 직원은 동일했지만 집행부가 체육회 이사회와 KOC 상임위원회로 이원화돼 다소 혼선이 있었다.

개정 정관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통합 체육단체 명칭은 한글로는 ‘대한체육회’ 영어로는 ‘Korean Olympic Committee’ 약칭

‘KOC’로 표기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체육회 이사는 42명, KOC 상임 위원은 29명 등 임원이 총 71명에 이르지만 통합 이사회는 임원 수를 16인 이상~21인 이내로 대폭 축소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현재 55개 가맹경기단체로 구성된 대의원은 추가 16개 시·도 체육회와 2명의 국제 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선수대표 1명 등 총 74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그러나 시·도 체육회 사무처장들은 시·도 체육회가 가맹단체로 체육회에 가입할 경우 지자체에서 예산 수급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의를 제기해 추후 입장을 정리해 박승희 회장에 전달하기로 했다.

대의원총회에서 회원들 투표권도 달라진다. 현재는 경기단체별 1표씩을 부여하지만 개정 정관이 발효되면 33개 올림픽 종목은 2표, 나머지 대의원은 1표만을 행사하게 된다.

또 개정정관에 따르면 대의원도 임원으로 이사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현재 24개인 자문위원회는 11개로 대폭 줄이는 대신 하반기에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연협뉴스

축구協, 이란전에 희귀·난치성 질환 어린이 초청

대한축구협회는 사회 공헌 사업 일환으로 오늘 저녁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이란과 홈 경기에 희귀·난치성 질환 어린이 20여 명을 초청한다.

이번에 초청된 어린이들은 한국 희귀난치성 질환협회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를 통해 참가 모집 신청을 받아 선정됐다.

광주여대 양궁 김명중

회장기 단체전 계명대 꺾어

광주여대 양궁팀이 올시즌 첫 ‘금빛과녁’을 명중시켰다.

기보배(4년)·신은정(4년)·조소현(2년)·조혜영(4년)으로 구성된 광주여대팀은 16일 강원도 원주양궁장에서 열린 제26회 회장기 전국대학·실업 양궁대회 여대부 단체전 결승에서 217점을 기록, 215점을 쓴 강호계명대를 2점차로 제치고 힘겹게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경기에서 전반적으로 고른 기량을 보인 광주여대는 기보배 75점, 신은정 73점

그리고 조소현이 69점을 각각 기록했다.

이로써 광주여대는 지난 4월 종별선수권대회 무관의 실움을 씻고 올해 첫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광주여대는 이날 준결승에서 동서대를 215-203으로 여유있게 누르고 결승에 올랐다.

지난 14일 끝난 개인전에선 기보배가 70m에서 금메달, 신은진이 30m에서 은메달을 각각 획득했다.

지난 2000년 창단한 광주여대 양궁팀은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금, 대학연맹전에서 은 그리고 대통령기 등에서 동메달을 기록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남·북, 월드컵 동반 진출 이뤄지나

北, 내일 새벽 사우디아라비아 본선행 ‘최종 혈투’

북한 축구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물 삼아 사상 첫 남북 월드컵 본선 진출의 화룡점정을 찍을까.

김정훈 감독이 이끄는 북한 축구대표팀이 거센 중동 원정길에서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직행 출전권을 노린다.

북한은 18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3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킹파드 스타디움에서 중동의 강호 사우디아라비아와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최종예선 B조에서 3승2무2패(승점 11)로 돌풍인 북한과 사우디아라비아는 경기 결과에 따라 한 팀이 조 2위까지 주어지는 월드컵 티켓을 얻는만큼 불꽃 튀는 승부를 펼칠 전망이다.

승점 10점(2승4무1패)으로 바짝 쫓는 이란은 17일 원정경기에서 한국을 꺾고 사우디아라비아-북한이 비겨야 조 2위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직행할 수 있지만 확률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외나무다리 대결을 펼치게 된 북한과 사

우디아라비아 모두 월드컵 본선 진출 열망이 크다.

북한은 8강 신화를 창조했던 1966년 대회 이후 43년 넘게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지 못했다. 북한이 본선 대열에 합류한다면 일찌감치 7회 연속 진출 쾌거를 이룬 한국과 남북이 나란히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에 나갈 수 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1994년 미국 월드컵 이후 5회 연속 본선 진출을 거둬오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북한에 달미를 잡힌다면 중동팀이 남아공행 직행 경쟁에서 모두 탈락하기 때문에 자존심을 살려야 할 중책도 안고 있다. /연협뉴스

이탈리아, 美 3-1 격파

칸페르데로 B조 1차전

2006년 독일월드컵 챔피언 이탈리아가 ‘미니 월드컵’으로 불리는 2009 국제축구연맹(FIFA) 칸페르데로전(이하 칸페르데로)에서 역전 드라마를 연출하고 기분 좋게 출발했다.

‘이주리 군단’ 이탈리아는 16일(한국시간) 오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대회 B조 1차전에서 선제골을 내줬지만 혼자 두 골을 사냥한 주세페 로시와 역전골을 넣은 다니엘레 데 로시의 활약으로 3-1 역전승을 거뒀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대회 2연패를 노리는 이탈리아는 대륙 챔피언들이 출몰하던 이번 대회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웠다. /연협뉴스

부동산경매의 성공투자는 —

한국경매 한국법률경매(주) ☎ 062) 225-1688 H.010-3565-2888

※ 위치: 지산동 법원 버스정류장 앞 ※ 무료주차시설 완비

잠깐!! 경매입찰 대리업무는 공인중개사로서 법원매수신청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법원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순회배상책임보험 1억원 가입업체) ※ 투자자실 분 및 재테크상담 대환영

지역	소재지	면적	총/층수	감평가	최저가	
서울	금호동 풍물야파르	23	18/12	9300만	8500만	
	동대문로 대주파크빌2차	46	17/8	1억8500만	1억2900만	
	치평동 금호타운	33	17/7	1억2300만	8600만	
	홍익동 새한신시빌	33	18/4	1억4500만	1억1100만	
	치평동 금호생울	52	17/11	2억4000만	1억8200만	
	화정동 화정주공	16	5/1	6300만	4400만	
	치평동 리안타워	25	20/20	8300만	6500만	
	진월동 힐튼메리	31	15/14	8400만	5880만	
	백운동 사옥스카이	32	15/9	9000만	6300만	
	동신동 라인	32	25/22	1억1100만	7700만	
남부	솔하동 금호타운	31	20/1	9000만	6300만	
	봉선동 리안아파트	32	25/22	1억1100만	7700만	
	문정동 솔릭스캐이빈	62	20/19	2억8000만	1억9600만	
	운정동 리안광역	31	18/1	1억1100만	7700만	
	지산동 삼성아파트	32	15/11	9400만	6600만	
	남부	지산동	46	15/2	1억5000만	1억5000만
	운정동 리안1차	50	11/3	1억4500만	1억1100만	
	홍익동 대주파크빌2차	33	13/6	1억3500만	9400만	
	운정동 롯데낙천대	33	14/5	1억7000만	1억1900만	
	간곡동 금호아파트	31	14/4	9000만	6300만	
대구	매곡동 미리보3차	33	20/14	9000만	6300만	
	태극동 삼인아파트	32	20/9	8200만	5700만	
	우산동 현대아파트	43	15/15	1억2300만	8600만	
	문정동 현대아파트	47	18/3	1억9000만	1억3300만	
	매곡동 삼익아파트	32	20/5	8000만	5700만	
	태극동 삼익아파트	47	20/17	1억2500만	8500만	
	우산동 현대아파트	43	15/3	1억2000만	8400만	
	문정동 현대아파트	26	20/8	8300만	4400만	
	산정동 해랑삼그리다	34	15/12	1억3500만	9400만	
	칠계동 힐튼동주	34	15/14	1억2800만	8900만	
부산	칠계동 힐튼동주	34	15/14	1억2800만	7500만	
	신항동 호반메도빌2차	34	24/12	1억6000만	1억1200만	
	칠계동 힐튼동주	34	15/14	1억2800만	8800만	
	칠계동 힐튼아파트	33	15/12	7000만	4900만	

여성탈모, 무모 이제 고민 끝!

여성전용 먹는 탈모제품의 특징

- 몇일만 먹어도 머리가 빠지는게 멈추고
- 머리가 굵어지며 풍성해지고
- 새로나는 머리가 힘있게 올라오고
- 피부 트러블이 완전히 사라지고
- 배꼽아래 무모가 풍성해진다.

1개월내 효과 없을시 전액 환불!!

여성 탈모의 원인은 모낭의 영양결핍
남성 탈모의 원인은 모낭의 위축
원인을 알면 답은 간단합니다

이제 고민 끝내십시오!!!

상담전화 02)2677-0231-2/010-3518-8995
글로벌 농협 569-12-034626(배의자)

강한 남자로 만드는 센-놈

사람의 몸은 쓰면 쓸수록 강해지며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퇴화됩니다.
이 세상에는 절절과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듯이
관과 감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생명이 있어 희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시 우복 솜으며 지
속적이고 반영구적으로 간편하며 그녀가 선호하는 강한 사
내로 변신 할 수 있는 신제품입니다.

상담전화 070-7786-8710/070-7786-9710
농협 569-12-034626(배의자)
서울 영등포 6가 11번지 영원 B/D 310호 글로벌테크